

13일째 '폭염특보'...온열질환자 세 자릿수로 폭증



'혁혁' 더워도 너무 덥네 폭염의 기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광주 동구 문화전당 역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37.6도의 온도가 표시돼 있다. 기상청은 10일에도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다. /김애리 기자

진도·섬지역 외 대부분 '경보' 발효
광주 22명·전남 79명 전년비 2배 ↑
가족 8만1천마리 폐사 피해 '눈덩이'
주말·휴일도 35도 안팎 '극한 더위'

광주·전남에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 특보가 대부분 지역에서 '경보'로 상향된 가운데 온열질환자와 가족 피해도 폭증하고 있다.

35도 안팎의 '극한 더위'는 이번 주말·휴일을 넘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예보돼 건강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하고 있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목포와 신안에 내려진 폭염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되면서 진도와 거문도·초도·흑산도·홍도를 제외한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

오후 3시 기준 광주·전남지역 최고기온은 ▲광주 38.3도 ▲광양 38.9도 ▲순천 36.6도 ▲장성 34.4도 ▲곡성 32.2도 ▲영암 30도를 기록했다. 다만 습도가 높지 않아 체감온도는 ▲무안 35.9도 ▲광주 34.9도 ▲영광 34.8도 ▲신안·함평 34.6도 ▲광양 34.5도로 나타났다.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벌써 세 자릿수를 넘어섰다.

전국 일별 온열질환자 추이



올해 질병관리청이 감시체계를 가동한 지난 5월 15일부터 전남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광주 22명, 전남 79명 등 총 101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50명(광주 11명, 전남 39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다행히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역 내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2023년 전남 3명, 2024년 광주 1명·전남 5명 등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해 왔던 만큼 보건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무더위로 인한 가족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남 18개 시·군 138개 농가에서 가족 8만1천51마리(닭 7만3천34마리·오리 5천3마리·돼지 3천16마리)가 폐사했다. 추정 피해액은 12억8천600만원에 달한다. 시·군별 피해액은 돼지 농가 피해가 집중된 무안군이 3억3천100만원(3천94마리)으로 가장 컸다.

이어 신안 2억4천900만원(124마리), 나주 2억3천만원(1만2천128마리) 등 순이다.

앞서 지난 4일까지 전남에서 폐사한 가족 수가 3만7천78마리였던 점을 감안할 때 불과 다섯새 만에 피해가 축수가 2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5억9천100만원에서 12억8천6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8일 1만9천83마리, 9일 2만507마리 등 이를 연속 2만마리 안팎의 가족이 폐사하면서 당분간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하림, 다슬 등 닭·오리 계열사를 대상으로 입식 조절(10~20%) 협조 요청에 나섰다. 또 오는 9월 말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가족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오후 3~9시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5~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하지만 최고기온은 32~35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11~12일 최고기온은 소폭 하락한 29~34도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외 활동·외출을 자제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와 전력량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정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재영·양시원 기자

바닷물도 '펄펄'...전남해역 고수온주의보 '비상'

서남해 일부·내만에 발효...도, 비상 대응
긴급방류·조기 출하 등 피해 최소화 총력

내만을 포함한 서해·남해 연안 일부 지역에 9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남도가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고 폭염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돼 고수온 주의보 발령 시기가 지난해보다 16일 앞당겨졌다. 현재 전남도 연안 수온은 21.1~30.7도를 기록하며 평년대비 1도 안팎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고수온 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 취약지역 17개소에 현장 대응반을 즉시 배치했다. 특보 해제 시까지 먹이 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 위험

분산을 위한 긴급 방류와 조기 출하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와 함께 '조기출하 상생협약체'를 구성, 9월까지 3개월간 15억원 규모의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긴급 방류 지원금은 어가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3천318개 양식장을 대상으로 대응 장비 가동 여부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462억원 규모의 장비·자재를 신속 지원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양식재해보험 가입 홍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4년 1천669건(38%)에 그쳤던 보험 가입률은 2025년 1천773건(40%)으로 상승했으며 주요 양식어종인 전복은 75%, 넙치는 78%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창우 친환경수산과장은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먹이 공급 중단, 조기 출하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잘 지켜 피해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선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이어진 고수온의 영향으로 여수·고흥 등 10개 시·군 900개 양식어가에서 57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김재정 기자

Today

광주 올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 152억원 6면

남도인물열전...비문없는 묘비 '아곡 박수량' 14면

주말한발발 별들의 축제...KBO 올스타전 16면

한걸음 더, 주민에게!
한번 더, 치안친절!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도민이 행복 한 안전전남

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치치안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과학치안
기반의

미래범죄
예방 전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 강화

주민참여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확대

성과 분석을
통한

치안 만족도
제고